

Sermon Notes:

서론: 마태복음 13 장을 ‘천국장’ 이라고도 부름

본론: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

1. 두 비유의 차이

가. 겨자씨: 집밖, 들 풍경 vs 누룩: 집안

나. 겨자씨: 남자 vs 누룩: 여자

2. 겨자씨의 비유

가.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음

나. 겨자씨가 작지만 가장 작은 씨는 아님 (관용적 표현)

다. 마태복음 17 장: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

3. 누룩의 비유

가.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 모두에 사용됨.

나. 시작은 작지만 놀랍게 성장한다는 의미로 사용

공중나는 새: 겔 31:6, 단 4:12 에 나옴 (역사적 배경)

4. 이 비유를 기독교 역사에 비추어볼 수 있음

가. 현재 75 억 인구 중 기독교 24 억 (천주교 포함)

나. 이름 없는 촌동네 출신 예수로부터 시작됨.

5.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는가?

가. 이해하지도,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

나. 제자들 역시도 제대로 이해 못함

6.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(cf 사 6:8)

결론: 뿌리 깊은 나무, 흔들리지 않는 나무, 푸르고 울창한 나무,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,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도구가 되십시오.

암송구절: 마태복음 13 장 303 절

‘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’

메모:

1.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?

2. 자신의 인생의 나무는 어느 정도 자랐는가?

3. 지금도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?